

“웹툰으로 그린 세계문학 읽기 만나세요”

2018 주목! 이 사람

<10> 웹툰 작가 '의외의 사실'



웹툰 작가 '의외의 사실'과 반려견 '마루'



'주월교차로쪽으로'

'같은 사람'인줄 몰랐다. 인기 만화 '마루의 사실'을 펴낸 웹툰 작가 '의외의 사실'과 광주를 스캐치한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김 준(40)이라는 작가가.

'의외의 사실'은 개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 '마루의 사실'로 유명하다. 웹사이트에 연재됐던 작품은 지난해말까지 모두 4권이 출간됐다. 줄곧 서울에서 활동했던 그녀는 2016년 광주로 내려왔고, 스캐치 북에 기록해 왔던 광주 풍경들을 담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느릿한 말투의 그녀는 같이 산지 이제 6년이 넘는 개 '마루'에 대해 그리고 좋아하는 책과 그림 등에 대해 말했다.

먼저 웹툰 '마루의 사실' 이야기. 김 준 작가는 웹툰을 그릴 때는 '의외의 사실'이라는 필명을 쓴다. 책 '마루의 사실'을 볼 때마다 필명이 인상적이었다 싶었는데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소설 '의외의 사실'에서 따온 이름이다.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종이에 콘테와 파스텔로 작업한 '내 친한 친구와의 가벼운 진밀감'으로 2003년 코로도바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 포르투갈 시나니마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이후 제작한 '그 여자네 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공간감' 등도 수많은 해외영화제에 출품했다.

웹툰 작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단편 애니메이션은 영화적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매, 유통 등이 되지 않고 대중들과 만나는 기회도 거의 없어요.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도 하기도 했죠. 또 애니는 압축적으로 보여줘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반면 웹툰은 생각한 대로 그릴 수 있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좋았어요."

웹툰 주인공은 2011년부터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마루'였다. 처음 만났을 때 11개월이었던 마루는 그녀와 오랜 세월 뒹굴며 한 가족처럼 살고 있다.

"제 만화 스타일이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찾거나 그리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도 키워봤지만 혼자 살면서 강아지가 삶에 들어오게 되자 생활에 너무 큰 변화가 생겼어요. 개를 키우던 초창기에는 자연스럽게 처음 느끼는 것들이 많아서 모든 게 소재가 됐죠. 점차 마루가 나이 들어가면

'노르웨이의 숲' 등 13편 담아

반려견 마루와 일상 담은 웹툰 인기

2016년부터 광주 생활

2월 28일까지 '광주 풍경' 전시회



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 담게 되더군요. 마루랑 산책을 자주 나가는데 마루 때문에 사람들과 친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마루가 땀어린 언인들이 많지요. 함께 있어 행복하고 고마운 존재죠."

2014년부터 1년간 연재한 '마루의 사실'은 애니 북스에서 전 3권으로 출간됐고, 2016년 연재한 '마루의 사실' 시즌 2도 지난해말 '오늘의 마루'라는 부제와 함께 출간됐다.

'의외의 사실'은 올 봄 또 한편의 책을 펴낸다. 민음사 블로그에 연재했던 '의외의 사실의 세계 문학 읽기'다. 책을 좋아하고 국어교사가 되고 싶었던 그녀에게 맞춤형 작업이었다. 300권 넘게 출간된 민음사 세계문학 시리즈 중 모두 13편을 선정해 한 차례는 '작품 이야기'를 또 한 차례는 인상깊은 대목을 그린 '이 장면'과 '작가 이야기'로 나눠 실었다. 작업한 책은 '체호프 단편선', 카프카의 '변신', 까뮈의 '페스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등이다.

지난해에는 역시 민음사의 요청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를 소개하는 만화

도 그렸다. 이번엔 출간될 책에는 블로그 연재분과 함께 이시구로의 대표작 '나를 보내지마'도 함께 실을 예정이다.

이번엔 현재 신세계 백화점 앞 선이고운치과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 '광주, 풍경은' 전(2월 28일까지) 이야기.

김준 개인전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소박하고 색다르다. 14cm×14cm 작은 공간에 담긴 광주 풍경은 독특하다. 특별한 기교도 없는 그림은 편안하고 따뜻하다. 펜과 수채화 색연필로 그린 작품들이다. A5 크기 정도의 스케치북을 항상 갖고 다니는 그녀는 마음에 남는 풍경을 만날 때마다 그림으로 남기곤 했다.

"초등학교까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서울을 떠나고 싶은데 너무 모르는 곳은 그렇다 싶어 광주로 왔어요. 제 작업이 꼭 서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용기를 냈죠. 평소에도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을 그리는데 그때마다 광주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 저곳을 그리게 됐네요."

그녀 작품 속에는 전남대학교가 많이 등장한다. 산수동 등 아파트 공사현장과 유통, 풍양동 등 거리 모습들도 담겼다.

"전대는 처음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 여느 캠퍼스와 달랐어요. 나무가 울창하고, 잔디밭도 많은 게 인상적이어서 그런 모습들을 담고 싶었어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전남대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고 나무와 잔디밭 뿐이라고 하더군요. (웃음). 광주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어요. 바로 옆 동네 분위기와 너무 다른 느낌이었어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풍경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김 작가는 독립큐레이터 정현주씨 기획으로 지난 2011년에도 드로잉전을 열었고 전시는 광주극장에서서도 진행했다. 그 때 인연으로 광주극장에서 열린 집자무서 등 유명감독들의 영화 티켓과 포스터를 그리기도 했다.

"처음 출판사에서 문학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을 때 참 좋았죠. 마루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 같구요. 또 다른 웹툰도 구상중이에요. 책을 좋아하니 책과 관련된 작업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일상과 풍경을 담은 작업도 꾸준히 하구요." 전시 문의 062-367-22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해설 맡은 김승일 교수

클래식은 곡마다 듣는 방법도 달라 감상 포인트 듣고 더 친해져 보세요

25일 첫 해설...상반기 6회 진행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331회 정기연주회 '2018 신년 음악회 ; 신세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로 경쾌하고 힘차게 시작한다. 이어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라스프의 협연 무대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다.

이 날 공연 40분 전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김승일(75·사진)교수의 음악회 해설이다. 김교수는 올 상반기 6차례의 공연 해설을 통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 후 지난 2008년 2월 정년 퇴임했다. 1980년부터 '빛고을 레코드 음악감상회'를 매월 1회씩 100회를 진행해왔던 그는 '다락'에서 '클래식 교실'을 열기도 했으며 호남신학대학교 '풍담 클래식', 광주문화재단 '클래식 아카데미',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클래식 아카데미', 서구청 두드림 평생학습관 '김승일 교수가 초대하는 클래식 행복' 등 다양한 강좌를 열었다.

이렇게 클래식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며 클래식 보급에 힘쓰고 있는 그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제안으로 공연 전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됐다"며 "클래식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편하게 접하고 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전 해설시간은 약 30분 정도예요. 짧은 시간이지요. 이 시간 동안 서곡, 협주곡, 교향곡 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설명할 생각입니다. 이제 가지 곡이 거의 모든 연주회의 정형화된 코스요. 음식으로 보자면 전채요리, 메인요리, 디저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가지 음식을 먹는 방법이 다르듯이 클래식도 각각의 곡마다 듣는 방법이 달라요. 관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또, 각 곡마다의 감상 포인트를 관객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음악과 축구를 해설하는 기준과 관점이 다르듯이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마다 내용과 색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해설도 각각의 곡에 맞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관객들이 좀더 쉽고 즐겁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해설을 통해 클래식과 좀더 가까워지고 클래식을 통해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관람객 1만명 돌파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중인 특별전<사진> '왕이 사랑한 보물'이 개막 한달여 만에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돌파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지난 20일 '왕이 사랑한 보물전'의 관람객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은 18세기 독일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 왕이었던 강건왕 아우구스투스2세가 수집한 보물들 가운데 명품만을 선정해 소개하는 전시다. 국내 최

초로 소개되는 18세기 바로크 왕실 유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관람객 집계에 따르면 개막 이후 1일 평균 320여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균 53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수준 높은 유럽 왕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문화예술 애호가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 062-570-70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